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2022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3번>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조는 역대 임금 중 가장 책을 좋아하는 군주였다고 평가 받는다. 통치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정조의 독서에서는 실용이 중시되었으며 정조에게 실용적인 책이란 세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 그래서 옛날을 바탕으로 오늘날을 비추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며 역사서에 경전 버금가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소설은 실용에 무익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한다고 여겨 평생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 정조는 책의 내용만이 아니라 책의 형태와 책을 읽는 자세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소매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책과 누워서 편히 보도록 설계된 책상을 금하였다. 학문이 도덕과 인륜을 다스리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정조는 하나의 틀에 매이는 독서를 사법(死法)으로 규정하여 멀리하였고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해 읽는 독서를 지향하였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성인의 뜻을 잘 헤아리되 무조건 따라 읽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해석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생활에 쓰일 수 있는 독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밀히 살피고 밝게 분별하여 심신으로 체득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수레 다섯 대에 실을 분량의 책을 암송한다 한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며 자잘하고 세세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책에 담긴 뜻을 스스로 체득하여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학문의 기본자세라 보았다. 정조는 독서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강조했다. 읽어야 할 책의 내용과 분량을 매일 정해 놓는 것이 좋으며, 많은 책을 읽으려 하기보다 한 권이라도 반복해서 살펴보고 치밀하게 읽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단번에 전체를 모두 알려 하기보다 대요(大要)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책을 혼자서 읽으면 관념에만 머물 위험이 있으므로 토론을 통해 책에서 배운 지식이 타당한지를 돌아보고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정조는 책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삶에서도 실천하며 독서를 통해 자기 삶의 물음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얻어 나갔다.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세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한다.
- ②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책의 형태와 읽는 자세도 중요하다.
- ③ 읽을 책의 내용과 분량을 매일 정해 놓고 읽는 것이 좋다.
- ④ 한 번을 읽어도 치밀하게 읽어 책의 전체 내용에 대해 모르는 것 없이 파악해야 한다.
- ⑤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배운 지식은 토론을 통해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논어』 한 권을 읽었는데, ㉠한 사람은 마치 자기 말처럼 다 외우지만 막상 어떤 경우에 닥치면 일찍이 생각이 책 속에 미치지 못하고 그 행동하는 바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읽은 것과는 반대로 한다. ㉡한 사람은 능히 한두 장도 외우지 못하지만, 화나는 일이 생기면 문득 맹렬히 반성하여 이렇게 말한다. “『논어』 중에 한 구절이었는데 내가 그 말을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니 화가 날 때 마음대로 하면 뒤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식의 말이였다.” 하고는 참고 이를 가라앉혔다.

- 홍길주, 『수여방필』 -

- ① 경전을 ‘자기 말처럼 다 외웠다’는 점에서 ㉠은 상황에 따라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② ‘읽은 것과는 반대로 한’다는 점에서 ㉠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한 독서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 ③ ‘능히 한두 장도 외우지 못한’다는 점에서 ㉡는 생활에 쓰일 수 없는 독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 ④ ‘화나는 일이 생기면 문득 맹렬히 반성하였’다는 점에서 ㉡는 책에 담긴 뜻을 심신으로 체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논어』 중에 한 구절’을 떠올리며 화를 ‘참고 이를 가라앉혔다’는 점에서 ㉡는 경전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독서에서 접하게 된 용어에 대한 자신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보 기>

정조의 독서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 하지만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법을 익히게 해 주는 소설도 충분히 실용적인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정조는 소설을 부정적으로 보았는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책을 찾아봐야겠어.

- ① 독서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체계화하고 있다.
- ② 자신이 읽은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들을 비교하고 있다.
- ③ 자신의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글의 생략된 부분에 보충할 내용을 찾고 있다.
- ④ 독서 과정에서 생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⑤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독서에서 접하게 된 용어에 대한 자신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교환 이론은 사회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로, 사회의 근본적 속성을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히 하려는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본다. 사회학자 리처드 에머슨은 개인 및 집합적 행위자 간의 교환이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 가능한지를 탐구하였다. 에머슨이 볼 때, 사회구조는 자신의 자원 가치를 높이려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구성된 것이다.

교환은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들이 자원의 분배를 놓고 협상하는 상황인 '협상된 교환', 행위자들이 추후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연속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상황인 '호혜적 교환'이라는 두 가지 일반적 유형 중 하나의 모습을 띤다. 협상된 교환의 특징은 작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비용과 이익에 대한 명시적 인식과 계산이 상당히 포함된다는 점,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을 추구하는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편, 호혜적 교환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원을 주는 것을 포함하며,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갚으리라는 기대 또한 포함한다. 따라서 호혜적 교환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보상의 연속으로 구성되지만, 협상된 교환에서는 자원이 분배되기 전 교환 행위자들 간에 자원에 대한 일련의 제안과 역제안이 이루어진다.

교환 행위에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행위자 A가 행위자 B에 대해 갖는 권력은 B가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얻기 위해 A에게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B가 A에 대해 갖는 권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며, 다른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원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정도와 이 자원의 대안이 매우 적거나 추구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정도에 따라 의존의 크기가 결정된다. 두 행위자는 모두 상당한 정도의 상호 의존성을 보일 수 있는데, 각자가 상대방에 대해 큰 권력을 부여하고, 그러므로써 교환 관계에서 권력의 총량 또는 평균값이 커지기 때문에 구조적 응집력 또한 증대된다.

그러나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면, 이 행위자는 교환 상대의 의존을 이용해 부가적 자원을 확보하거나 의존적 상대방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A에 대한 B의 의존 때문에 A가 B에 대해 더 많은 권력을 가진다면, A는 권력의 이점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권력 불균형 관계인데, 에머슨은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권력 사용은 권력관계에 평형을 부여하는 균형화 작동을 활성화한다고 보았다. A가 B에 대해 권력의 이점을 가진 상황에서, B에게는 A가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A가 제공하는 자원의 대안을 찾거나, 자신이 A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증진하거나, 자신이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A의 대안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4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 선택지들은 A에 대한 B의 의존을 감소시키거나, 반대로 B에 대한 A의 의존을 증가시킴으로써 교환 관계의 균형을 잡는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에머슨은 행위자 간의 연결 패턴인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 내의 중심성과 권력관계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의 다른 위치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자원의 흐름을 매개한다는 의미이다. 에머슨은 중심성을 보여 주는 네트워크 내에서 높은 중심성을 가진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해 자원의 흐름을 제대로 매개하지 못하면, 권력은 자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행위자들을 축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봉건제에서 왕과 영주들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정해 보자. 왕은 영주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영주들 사이의 자원 흐름을 매개한다. 영주들은 자기 영지에서 농노들에 대한 지배를 바탕으로 왕에게 자원을 제공하며, 농노들이 생산한 자원의 일부를 왕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제공받은 자원에 대해 왕이 무엇으로 갚을지가 문제가 된다. 영주들은 왕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교환 관계를 파기하고 네트워크 내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하게 된다. 이때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이 있는 영주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왜 봉건제가 붕괴되는 경향이 있는지 보여 준다.

실제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에서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 쪽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위자들이 교환 관계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에머슨은 교환 과정을 네트워크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개념화함으로써 교환 이론을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만들었다.

4.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네트워크 내의 중심성과 권력관계의 변화에 대해 에머슨의 이론은 실제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들을 설명한다.
- ② 사회의 행위자간 자원교환은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히 하려는 욕구에 따른 것이며, 이는 유형화 할 수 있다.
- ③ 교환 행위에서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 원천으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갖는다.
- ④ 교환 행위자간의 권력 불균형 관계에서 권력의 이점을 가진 행위자의 교환 상대에 대한 권력 사용은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 ⑤ 에머슨은 사회 구조가 행위자간의 교환 행위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인 및 집합적 행위자의 교환을 동일한 이해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T1, T2는 함께 정기적으로 테니스 게임을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T3이 들어와 T1 과는 게임을 하지 않고 T2와만 게임을 하게 되었다. T1과 T3은 테니스를 치려면 T2에게 의존해야 해서 게임에 테니스공을 제공했다. 이후 T4가 모임에 새로 들어왔다. T4는 T1이나 T3과만 테니스 를 쳤다. T1, T2, T3, T4는 모두 같은 테니스 실력을 갖췄으며 동등한 경기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 ① T3이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1은 T3로부터 부가적 자원을 획득하였다.
- ② T3이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2는 T1에 대해 권력의 이점을 누리게 되었다.
- ③ T4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2에 대한 T1의 의존이 증가하였다.
- ④ T4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1이 T2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 ⑤ T4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3가 T2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가 낮아졌다.

6. 윗글을 읽으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환 행위에서 두 행위자가 각각 상대방이 가진 자원에 가치를 부여하며 그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높은 상호의존성을 보이겠군.
- ② 교환 행위에서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권력이 적으면 교환 상대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거나 자신에 대한 상대의 의존을 증가시키겠군.
- ③ 호혜적 교환에서는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겠군.
- ④ 협상된 교환에서는 자원이 분배되기전 협상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겠군.
- ⑤ 협상된 교환에서는 행위자가 자신에게 어떤 자원을 제공할지 알고 있지만, 호혜적 교환에서는 상대가 어떤 자원을 제공할지 알 수 없겠군.

7. 문맥상 ㉠~㉣와 바꿔쓰기 적절한 것은?

- ① ㉠ : 돌아가는
- ② ㉡ : 걸린다는
- ③ ㉢ : 살피는
- ④ ㉣ : 깨뜨리고
- ⑤ ㉤ : 넘어가는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35년에 가상디는 빛의 속력이 무한대라는 가정하에 멀리에서 쏜 대포의 불빛과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 의 차이를 잴으로써 음속을 측정하고자 했다. 그는 대포에서 관측자까지의 거리를 대포의 불빛을 본 후에 대포 소리가 들리기까지 경과한 시간으로 나눴으로써 음속을 계산했던 것이다. 그가 측정 결과로부터 얻은 값, 즉 음속의 측정값은 478.4m/s로 오늘날 알려진 실젯값보다 상당히 컸다. 이후 메르센은 448.2m/s, 보 렐리와 비비아니는 349.8m/s 등 실젯값에 더 가까운 측정값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오차는 컸다. 1738년에 파리 과학 아카데미는 0℃로 환산했을 때 332m/s로 실젯값에 매우 근사한 값을 얻었다. 이때까지 음속 측 정은 온도, 습도, 기압, 바람의 방향이 음속에 미치는 효과를 엄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18세기 초부터 연구자들은 음속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때로는 관련이 없는 요인들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했다. 1708년에 영국인 더햄은 순풍이 음속을 빠르게 하고 역풍이 음속을 늦춘다고 제대로 판단했지만 비와 안개가 음속을 늦춘다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 또한 그는 측정도 해 보지 않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음속이 같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이런 생각은 1740년에 볼로 나의 의학 교수인 비안코니에 의해 기온이 상승하면 음속이 빨라진다는 제대로 된 생각으로 대체되었다.

18세기 초에 뉴턴은 음속을 이론적으로 추정하였으나 그 값은 당시 받아들여지던 측정값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후 연구자들은 그 차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기 조건에서 음속의 측정값을 구할 필요 가 있었다. 인도에 파견된 영국의 천문학자인 콜딩햄은 1820년부터 이듬해까지 음속을 측정하였고 측정할 때마다 날씨와 대기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였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조건에서 음속을 측정한 사례는 이전에 없었다. ㉠콜딩햄의 음속 측정은 다양한 대기 조건이 음속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당시 기준으로 거액의 연구비와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장기간 수행된 거대과학 프로젝트였다. 그는 다양한 대기 조건에서 음속을 측정하고자 하였지만 마음대로 대기 조건을 조절할 수는 없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기 상태가 자연적으로 바뀌는 것을 이용했다. 즉 다양한 대기 샘플을 얻기 위하여 콜딩햄은 사계절에 걸쳐서 날마다 달라지는 대기 조건에서 측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그는 음속에 미치는 풍 향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다른 소리 전달 경로를 확보하였다. 하나는 세인트모머스 산에서 마드라스 천문대까지의 경로였고, 다른 하나는 세인트조지 요새에서 마드라스 천문대까지의 경로였다. 두음 원은 관측점을 사이에 두고 거의 반대 방향으로 떨어져 있었으나 일직선상에 있지 않았고 전자의 음원은 후 자의 음원에 비하여 거의 두 배의 거리에 있었다. 이러한 신중한 경로 선정은 경로에 따라 음속에 대한풍향의 효과를 차별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음속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선행 작업은 빛과 소리의 전달 시간에 차이를 가져올 정도로 충분히 멀리 떨어진 음원과

관측점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영국은 광범위한 삼각 측량을 수행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인도에서도 램브턴 대령에 의해 인도 삼각 측량 대사업이 수행되었다. 골딩햄은 램브턴의 측정값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음원과 관측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램브턴의 측정값과 비교하였다. 먼 거리는 12회, 가까운 거리는 6회 측정하여 각각 29,547피트(9,006.0미터)와 13,932피트(4,246.5미터)로 확정하였다. 거리 측정을 기반으로 1년 반의 기간 동안 골딩햄은 두 거리에 걸쳐서 800차례 이상 대포 소리의 이동 시간을 측정하였다. 매일 정해진 시각에 대포를 쏘고 골딩햄의 두 조수가 당시로서는 가장 정밀한 시계인 아놀드 크로노미터로 시간을 잰다. 두 조수는 발사되는 대포의 불빛을 본 순간부터 대포 소리가 들릴 때까지의 시간을 잰다. 조수들은 서로 의논하지 않고 측정 결과를 그대로 골딩햄에게 보고했고 골딩햄은 측정 기록과 함께 기압, 기온, 습도, 풍향, 날씨를 함께 적었다. 골딩햄은 음속이 소리의 세기에 의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포를 쏘는 화약의 양을 다르게 하여 측정을 수행한 결과, 소리의 세기는 음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골딩햄은 둘 중 더 먼 거리의 음원에서 관측점까지 소리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기 조건에 따라 최소 24.8초에서 최대 27.6초까지 3초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했다. 기록을 분석하여 골딩햄은 기온이 화씨 1도(섭씨 0.56도)만큼 올라갈 때마다 공기 중 음속이 0.36m/s씩 빨라진다고 제시하였고, 습도와 대기 압이 높아질수록 음속이 올라가는 비율 또한 정밀하게 제시하였다. 골딩햄은 풍향이 소리 방향과 일치할 때가 반대 방향일 때보다 음속은 6m/s만큼이나 빨라진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골딩햄은 음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상학적 요인을 확정하여 이후 관련된 실험들이 관련 인자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상반된 속성을 갖는 대상을 대조하면서 새로운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단계를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있다.
- ④ 논의의 중심이 된 대상과 기존의 다른 대상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비교하고 있다.
- ⑤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유비적 관계에 있는 다른 대상을 비유로 제시하고 있다.

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10.① 메르센은 바람이 음속에 미치는 효과를 엄밀히 고려하지 않았다.
- ② 더햄은 기온이 음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 ③ 뉴턴이 이론적으로 추정된 음속값은 실제 측정한 값과 상당한 오차가 있었다.

④ 골딩햄은 관측 결과를 토대로 풍향이 음속에 미치는 효과가 실재함을 제시하였다.

⑤ 램브턴은 골딩햄의 음속 측정을 돕기 위해 음원과 관측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1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수들이 측정 결과를 의논하지 않고 보고한 것은 보고의 신속성이 중요했기 때문이겠군.
- ② 음원과 관측점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한 것은 음속값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함이었겠군.
- ③ 소리의 세기가 강해진다고 하여 소리가 빨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도된 실험을 통해 확인했군.
- ④ 대포의 불빛을 본 시점부터 시간을 잰 것은 빛이 해당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은 무시한 것이겠군.
- ⑤ 계절에 따라 온도, 습도, 풍향 등이 바뀌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 두 해에 걸쳐 측정을 반복했군.

12. 윗글에 대해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글을 읽다보니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었을 때 재미있었던 장면이 떠올랐다. 허클베리가 뗏목을 타고 여행하다가 강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이다.

"먼 쪽에 뗏목 하나가 떠내려갔다. 어떤 사나이 하나가 그 위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도끼가 번쩍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보이지만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 도끼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사나이의 머리 위까지 왔을 때 그때서야 '딱'하는 소리가 들렸다.소리가 물 위를 전해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걸렸다...일단 짙은 안개가 내리게 되면 거룻배나 뗏목 같은 것이 우리들의 바로 옆을 지나가는 까닭으로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소리, 웃음소리 등이 들렸다. 이러한 것들이 똑똑히 들렸지만 사람 모양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 ① 도끼로 장작을 패는 행동과 '딱' 하는 소리는 동시에 발생하지만 행동을 보는 것과 소리를 듣는 것이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일어날 수 있군.
- ② 도끼로 장작을 패는 소리는 대포 소리에 비해서 작더라도 골딩햄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 자가 후자보다 느리게 움직인다고 말할 수 없겠군.
- ③ 안개가 끼면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허클베리가 똑똑히 들었다는 것은 더햄이 생각한 음속에 대한 안개의 효과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군.
- ④ 사나이가 장작을 도끼로 패고 나서 도끼를 머리 위로 올릴 때까지 2초의 시간이 걸렸다면 두 뗏목 사이의 거리는 세인트로머스 산에서 마드라스 천문대까지의 거리보다 가깝겠군.
- ⑤ 도끼가 떨어지면서 번쩍할 때 허클베리가 '딱'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과 골딩햄의 조수가 대포의 불빛을 보고서 대포 소리를 듣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은 모두 광속이 음속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려 주는군.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는 인간의 생활 양식을 파괴하고 생존을 위협하면서 전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등장한 입장으로 환경 관리주의가 있다. 환경 관리주의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 기술이나 환경 관련 제도를 통해 자연환경을 잘 관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다른 입장인 사회 생태주의와 근본 생태주의는 환경 관리주의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회 생태주의는 환경 문제의 원인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최고 형태인 자본주의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사회 생태주의에서는 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해 사회 변혁을 이루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종식시키고, 자연환경과의 지속적 균형을 보장해주는 인간 공동체를 창출해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심층생태론으로도 불리는 근본생태주의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태도로 인해, 인간을 자연과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이 환경 문제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 자연도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삶을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변화시켜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삶이나 의식에서의 미세한 변화가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환경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에 대해서 과타리(Guattari)는 어느 하나의 입장만으로는 환경 문제로 인한 현대 사회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보고 생태철학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생태 철학을 환경 관리주의에 대응하는 환경 생태학, 사회 생태주의에 대응하는 사회 생태학, 근본 생태주의에 대응하는 정신 생태학, 이 세 가지 생태학으로 제시하고 환경 생태학에 사회 생태학과 정신 생태학을 접합하였다. 그가 주장한 생태 철학의 핵심은 '인간 대 자연'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환경 생태학의 '자연' 영역, 사회 생태학에서의 '사회' 영역, 정신 생태학에서의 '인간' 영역, 이 세 가지 생태학적 영역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성을 새롭게 생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체성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이며, 주체성의 토대는 자유로운 자기의지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육체와 정신이다. 주류 사회학의 관점에서는 한 개인이 사회가 주는 역할들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주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며, 사회는 이 역할들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을 억압하거나 격리, 처벌해야 한다. 과타리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주체성 형성을 동질적인 주체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가령 엄마라는 역할에 대한 주체성은 사회가 제시한 특정한 모습으로 동일시된다는 것이다. 그에게 주체성은 사회가 만들어낸 동질적인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다양한 관계

나 서로 다른 경험과 같은 이질적인 요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역할과 관련한 주체성은 어머니가 안아 줄 때 느끼는 포근함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어머니에게 혼나면서 만들어질 수도 있으며, 또는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과타리는 주체성 생산에 대해 동질적인 요소로 주체성이 동질하게 생산되는 것을 동질 발생으로, 이질적인 요소에 의해 다양한 주체성이 생산되는 것을 이질 발생으로 구분했다.

과타리가 살았던 당대의 사회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가 매체 등을 통해 물질 지향적, 소비 지향적 욕망을 자극하며 개인을 동질화하고 있으며 이질적으로 발생하는 주체성을 억압하거나 격리한다고 보았다. 그의 생태 철학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동질적인 주체성으로 는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새로운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들이 변화하지 않는 한, 생태계의 보존이나 복원은 언 제나 경제적 수단과 논리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과타리는 근본 생태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연 주의적인 삶을 되찾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의 관점에서 욕망은 존재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명 활동이다. 그는 이질 발생적인 욕망을 바탕으로 주체성을 생산함으로써, 기계적으로 생산되는 자본주의적 욕망을 전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타리는 새로운 주체성 생산으로 변화한 개인들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수단과 논리, 자본주의의 욕망에 따른 동질적 주체에서 벗어나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새로운 주체성 생산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다르게 되기'라고 하고, 이를 통해 자신 역시 다른 사람과 차이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타자와의 차이를 공감하며 나아가 그 공감을 토대로 모든 사태를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보고 느끼면서 색다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혁명적인 행위로 이어진다. 이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 시스템으로서 자연과 사회와 공감하는 연대적 의식과 윤리적 책임감을 내포한다. 과타리에게 있어서 생태주의적 삶이란 자연-사회-인간의 거대한 생명적 생산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자연으로 회귀하지 않는 삶,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 매몰되지 않는 삶이며, 동시에 사회 안에서 주체성을 개방하는 해방적인 삶이다.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환경 문제에 대한 특정한 주장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각 주장의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 ③ 환경 문제에 대한 여러 해결 방법을 동시에 서술하며 각 방안의 변화 과정을 밝히고 있다.
- ④ 환경 문제에 대한 특정 학자의 주장을 설명하며 그 주장을 보완하는 여러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⑤ 환경 문제에 대한 여러 입장을 소개하고 이 입장들을 접합하는 특정 학자의 주장을 서술하고 있다.

14.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과타리는 새로운 과학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가 동질화되어 있으면 환경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② 근본 생태주의에서는 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해서 삶이나 의식에서 미세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주류 사회학에서는 사회에서 만들어 낸 역할들에 각 개인이 동질화되도록 만드는 것을 주체성 생산이라고 본다.
 ④ 과타리는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중 어느 하나의 관점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⑤ 과타리는 '다르게 되기'를 통해 개인이 자신과 타자와의 차이를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자와 색다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1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
 ② ㉠과 ㉣ 모두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③ ㉡과 ㉣ 모두 인간을 지배하는 존재는 자연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은과 ㉡ 달리 자연환경과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 창출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은과 ㉠ 달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 기술이나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중시한다.

16. 생태철학의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 영역, 자연 영역, 사회 영역의 변혁을 이뤄 낼 수 있는 주체성 생산이 필요하다.
 ② 욕망을 인간이 창조적인 생명 활동을 위해서 벗어나야 하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한다.
 ③ 환경 관리주의, 사회 생태주의, 근본 생태주의 각각에 대응하는 세 가지의 생태학이 설정되어 있다.
 ④ 자본주의 체제는 물질 지향적이며 소비 지향적인 욕망에 저항하는 개인을 억압하거나 격리한다고 본다.
 ⑤ 생태주의적 삶을 인간의 삶이 자연이나 사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새로운 주체성을 개방하는 삶으로 본다.

17. 밑글을 읽은 학생이 과타리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국의 정부는 경제적 이익과 이동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고속 도로 건설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산 고속도로 터널 공사가 시작되었다. 터널 공사로 인해 ○○산이 파헤쳐지면서 이 산의 연못에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이 죽어 갔고, 생태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사진 예술가는 죽어 가는 동물들을 촬영하면서 생태 운동가로 변하게 되었다. 그는 터널 공사 중지 민원이 통하지 않자 터널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단식을 시작했다. 이 단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터널 공사를 관망하던 사람들이 터널 공사 중지를 지지하게 되었고, 이들은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존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여러 지역에서 전개하였다. □□는 동물도 인간과 같이 삶의 터전을 뺏길 수 없으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과 같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연못의 대표적인 물고기인 △△를 원고, 자신을 소송 대리자로 공사를 중지하는 생명권 소송을 시작했다. 경제적 이익과 편리 때문에 소송을 반대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 ① 일부 주민들이 터널 공사 중지 소송에 반대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의해 동질하게 생산된 주체성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겠군.
 ② □□가 터널 공사 중지를 위해 단식을 한 것은, 새로운 주체성 생산으로 자연의 생명을 지키려는 존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③ □□가 동물도 삶의 터전을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에는, 동물에 대한 공감과 물고기 △△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④ 물고기 △△를 원고로 내세운 것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연으로 회귀하여 동물과 인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터널 공사의 중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은, 이질 발생적인 욕망을 바탕으로 한 주체성 생산을 통해 A국 정부의 자본주의적 욕망을 막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겠군.

18.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온
 ② ㉡: 불러올
 ③ ㉢: 일으킬
 ④ ㉣: 뒤집어엮어야
 ⑤ ㉣: 파묻히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차설. 왕희의 아들 석연이 길일을 당하며 노복과 가마를 갖추어 장미동에 나아가니, 이때 야색이 삼경이라. 노복이 들어가 소저를 납치하고자 하더니, 이때 소저가 등축을 밝히고 예기(禮記)를 보더니, 외당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거늘, 소

저가 마음에 놀라 시비 난향을 불러 왈,
 "외당에서 사람 소리가 요란하니, 네 가만히 나가 그 동정을 보라."

난향이 나아가 보고 급히 돌아와 고 왈,
 "왕 승상의 아들이 노복과 가마꾼을 거느려 외당에서 머뭇거리고 있더이다.' 소저가 대경 왈,

"저 즈음께 왕희 청혼하였거늘, 내 허락지 아니하고 중매하는 사람을 물리쳤더니 오늘 밤 작당하여 음이 분명 나를 납치하고자 함이라. 일이 급박하니 장차 어찌하리오?" 하고 죽으려 하거늘, 난향이 고 왈,

[A] 「"소저는 잠깐 진정하소서. 소저가 만일 목숨을 함부로 여기시면 부모 제사와 낭군의 원수를 누가 갚으리잇고? 바라건대 소저는 소비(小婢)와 의복을 바꾸어 입고 소비가 소저 모양으로 앉았으면 저 사람들 ㄴ이 반드시 소비를 소저로 알지니, 소저는 급히 남자 옷으로 갈아입으신 후 후원을 넘어 피신하옵소서."

소저가 왈, "네 말이 당연하나 내 몸이 규중에서 자라 능히 문밖을 알지 못하거늘 어디로 갈 바를 알리오? 차라리 내 방에서 죽으리라."하고 슬프게 우니, 난향이 다시 고왈, "천지는 넓고 광활하며 인명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어디 가 몸을 보전치 못하리오? 일이 가장 급하오니 소저는 천금과 같이 귀한 몸을 가볍게 버리지 마옵소서."하며 급히 도망하기를 재촉하니, 소저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왈, "난향아, 만일 네 행색이 탄로 나면 왕희의 손에 내 목숨을 보전치 못하리니, 한가지로 도망함이 어떠하뇨?"

난향이 왈, "소비 또한 이 마음이 있으되, 왕가 노복이 소저를 찾다가 없으면 근처로 흩어져 기를 쓰고 찾을 것이니, 소저가 어찌 화를 면하려 하시나잇고? 빨리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소저가 하릴없이 의복을 벗어 난향을 주고 남자 옷을 입고 후원 문으로 나가 수리(數里)를 행하니라. 차시 난향이 소저의 의복을 입고 서안에 의지하여 앉았더니, 이윽고 왕 공자가 노복과 시녀를 거느려 내 정(內庭)에 돌입하여 시녀를 명하여, "

소저 빨리 모셔라."하니, 시녀가 명을 듣고 들어가 소저를 보고 문안하니, 난향이 들은 체 아니 하거늘, 시녀가 다시 고 왈, "왕 공자 내림하였사오니, 소저는 백년가약을 맺으소서.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연분이오니 이런 좋은 때를 잃지 마옵소서."

하고 가마에 오르기를 재촉하거늘, 난향이 속으로 우습고 분한 마음이 들어 꾸짖어 왈,

"내 집이 비록 가난하고 변변치 않으나 조정 중신의 집이거늘, 너희가 외람되이 무단 돌입하여 어찌하고 자 하나뇨? 내 어찌 더러운 욕을 보리오?"

하고 비단 수건으로 목을 조르니, 왕가 노복 등이 많은지라 강약이 부동(不同)하니 어찌 당하리오? 하릴없이 가마에 올라 장안으로 향하여 갈 때, 동으로 벽파장 이십 리에 다다르니 동방이 밝는지라. 벽파장 노소인 민이 다 구경하며 하는 말이,

"장 한림의 여아 애황 소저와 승상의 자제가 정혼하여 신행(新行)하신다." / 하더라.

난향이 승상의 집에 다다르니, 잔치를 배설하고 대소 빈객이 구름같이 모였더라. 난향이 가마에서 내려 안채의 대청으로 들어가니, 모든 부인이 모여 앉았다가 난향을 보고 칭찬 왈,

"어여쁘다. 장 소저여! 진실로 공자의 짝이로다."하며 칭찬이 분분할새, 난향이 일어나 외당으로 나아가니 내외 빈객이 크게 놀라는지라. 난향이 승상 앞에 나아가 좌우를 돌아보며 왈,

[B] "나는 장미동 장 한림 님 소저의 시비 난향이러니 외람이 소저의 이름을 띠고 승상을 잠깐 속였거니와, 왕희는 나라의 녹을 받는 중신으로 명망이 일국에 으뜸이요, 부귀 천하에 제일이라. 네 자식의 혼사를 이룰진대, 매파를 보내어 예의를 갖추어 인연을 맺음이 당연하거늘, 네 무도불의(無道不義)를 행하여 깊은 밤에 노복을 보내어 가만히 사대부가의 내정에 돌입하여 규중처자를 납치함은 무슨 뜻이뇨? 우리 소저는 너의 모욕을 피하여 계시나 결단코 자결하여 원혼이 되었을 것이니 어찌 통분치 않으리오?" 말을 마치고 슬피 통곡하니, 승상이 대경하여 난향을 위로 왈, "소저는 백옥 같은 몸으로서 천한 난향에게 비(比)하니 어찌 이런 말을 하나뇨?"

하고 시비로 하여금 내당으로 보내고 소저의 진가(眞假)를 분별치 못하여 장준을 청하여 보라 한데, 장준이 들어가 보니 과연 질녀가 아니요 난향이라. 대경하여 바빠 승상께 고하니, 왕희 대로하여 난향을 죽이려 한대, 만좌 빈객이 말려 왈,

"난향은 진실로 충성스러운 시녀이니, 그 죄를 용서하소서." 승상이 크게 부끄러워 장준을 크게 꾸짖고 난향을 보내니라. 각설. 장 소저가 그날 밤에 도망하여 남으로 향하여 정처 없이 가더니, 수일 만에 여람 땅에 이르러 이름을 고쳐 장계운이라 하고 한 집에 가 밥을 빌더니, 이 집은 최 어사 집이라. 어사는 일찍 죽고 부인 희 씨한 딸을 데리고 집안 살림을 잘 다스려 집의 형편이 넉넉하더라. 부인이 문을 사이에 두고 장 소저의 거동을 보니, 인물이 비범하고 풍채 준수하거늘, 부인이 소저에게 왈, "차인의 행색을 보니 본대 걸인이 아니라."하고, 시비로 하여금 서헌으로 청하여 앉히고, 부인이 친히 나와 소저를 향하여 문 왈, "공자는 어디 살며 나이 몇이나 되고, 이름은 무엇이라 하나뇨?" 소저가 대왈, / "본대 기주 땅에 사는 장계운이라 하옵고 나이는 십육 세로소이다." 부인이 또 문왈, / "부모는 다 살아 계시며, 무슨 일로 이곳에 이르시나뇨?"

소저가 대왈, /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어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나이다."

부인 왈, / "공자의 모양을 보니 걸인으로 다니기는 불쌍하니, 공자는 아직 내 집에 있음이 어떠하뇨?" 소저가 사례 왈,

"부인이 소생의 가족 없는 외로움을 생각하사 존문에 두고자 하시니, 하해 같은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잇고?"

부인이 희열하여 노복을 명하여 서당을 깨끗이 닦고 서책을 주며 왈, "부디 학업을 힘써 공명을 취하라."

소저가 서책을 받아 보니, 성경현전(聖經賢傳)과 손오병서라. 소저가 학업을 공부할새 낮이면 시서 백가를 읽고, 밤이면 손오병서와 육도삼략을 습득하여 창검 쓰는 법을 익히니, 부인이 각별히 사랑하여 친자식 같이 여기더라.

세월이 흘러 삼 년이 지나니, 장 소저가 나이 십구 세라. 재

주는 능히 풍운조화를 부리고 용력은 능히 태산을 끼고 복해를 떨 듯하더라. - 작자 미상, '이대봉전' -

19. 윗글에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왕희는 난향의 충절을 이유로 애황의 행방에 대한 추적을 중단하였다.
- ② 난향은 하늘의 뜻을 이유로 함께 도망가자는 애황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 ③ 석연은 매파의 청혼 승낙을 이유로 가마를 갖추어 장미동을 방문하였다.
- ④ 애황은 자신의 성장 환경을 이유로 난향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 ⑤ 희 씨는 애황의 비범함을 이유로 애황에게 자신의 딸을 돌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20. 윗글에 제시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애황의 '외당'은 애황을 향한 위협을 난향이 확인하는 공간이고, 왕희의 '외당'은 애황을 향 했던 위협을 빈객들이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② 애황의 '내정'은 애황에 대한 석연의 처분이 난향에 의해 좌절되는 공간이고, 왕희의 '내당'은 난향에 대한 왕희의 처분이 빈객들에 의해 좌절되는 공간이다.
- ③ '장안'은 애황을 대신하여 난향이 향하는 곳이고, '여람 땅'은 난향의 권유로 인해 애황이 향하는 곳이다
- ④ '최 어사 집'은 '승상의 집'과 대비되어 고난을 피하기 위해 애황이 자발적으로 찾아간 곳이다.
- ⑤ '서헌'은 애황이 희 씨의 제안을 수락하는 공간이고, '서당'은 애황이 희 씨의 당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간이다.

21. [A]와[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가족 간의 인륜을 근거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② [A]는 [B]와 달리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다.
- ③ [B]는 [A]와 달리 상대방의 신분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상대방의 과거를 환기하고 있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대봉전」은 제목이 남성 주인공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작품 내에서 여성 주인공인 장애황의 활약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성 영웅 소설로 평가받기도 한다. 여성 영웅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한 후 영웅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남장(男裝) 모티프가 활용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남장 모티프는 여성 주인공의 사회 진출을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 주인공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활용되거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 ① 석연과의 혼인을 거부하기 위해 애황이 자신의 집을 떠나 방랑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왕희의 청혼은 여성 주인공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에 해당하겠군.
- ② 애황이 난향의 제안에 따라 남장을 하고 집을 떠남으로써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남 장 모티프가 여성 주인공의 위기 극복에 활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왕희가 장준의 도움으로 애황의 진가를 판별하여 난향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모습에서 남장 모티프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애황이 남성이라고 생각하여 학업에 힘써 공명을 취하라며 서책을 주는 희 씨의 모습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남장 모티프가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애황이 풍운조화의 재주를 부리고 뛰어난 용력을 지니게 된 것은 위기를 극복한 여성 주인공이 영웅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해당하겠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섬나라에 봄빛이 움직이지만
하늘가의 길손은 못 돌아가네 풀은 천리
잇달아 푸르러 있고

㉠달은 타향 고향에 함께 밝구나

유세에 황금 죄다 써 없어지고
고향이 그리워서 흰머리 나네
사나이가 사방에 뜻 두는 것은
공명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네

평생동안 남과 북에 분주했지만
마음먹은 일은 자꾸 빛나가도다

㉡고국은 바다 서편 언덕에 있고

외로운 배는 하늘 이쪽에 있네
매화 핀 창가에는 봄빛 이르고
판잣집엔 빗소리 크게 나누나
홀로 앉아 긴 해를 보내거니와
집 생각의 괴로움 어찌 견디랴

- 정몽주, '홍무 정사년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지음[洪武丁巳]

奉使日本作」

[나]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오겠다.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㉞종달새만 무에라고 지껄이겠다.

이 비 그치면
시새워 병글어질 고운 꽃밭 속
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

㉞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香煙)과같이
땅에선 또 아지랑이 타오르겠다.

- 이수복, '봄비」

[다]

전엔 집집마다 다락들이 있었다. 하긴 지금도 한옥이라든가 하는 집들엔 다락이 있겠지만 양옥 혹은 아파트가 주거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도시가 점점 위로 솟아만 가는 동안 옆으로 푸근하게 펼쳐 앉았던 한옥들은 어느새 사라졌고 그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다락들도 사라져 갔다.

그때 다락 속의 어둠에선 향내가 났었다. 그것은 무수한 것들을 '품던 공간'의 향내이기도 했다. 그건 좀 해지고 허접스러운, 그러나 가장 우리의 삶에 가까운 것들에게서 풍기는 향내 - 다락엔 무엇인가 보여 주고 싶지 않은 그 집의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 이기도 했다.

'품는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집의 출발점이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느 곳에선가 보호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 '보호소'에서 어둡고 천장이 낮은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던 다락. 그 안온함은 마치 생명이 품어지는 자궁과도 같다고나 할는지. ②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겐 간혹 자기의 삶을 숨기고 홀로 충만한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구석'이라는 공간이 필요한 법인데, 다락은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

이었다고 생각한다. 하긴 다락의 내음을 향기라고 표현하는 것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거기선 오랫동안 방치된 어둠 속으로부터 혹은 낡고 곰팡이 낀 것들로부터 풍기는 음습한 습기 같은 것이 다락에 들어가는 이의 살을 건드려 움츠리게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다락의 그 음습함을 음습함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거기엔 곰삭은 것들 에게서만 풍기는 향내, 어떤 이에게는 악취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을 어떤 이들은 기가 막힌, 아무 데서도 말할 수 없는 향내로 인식하는 어떤 것갈의 냄새와도 같은 향기를 풍긴다.

[A] 어린 시절 우리 집엔 다락이 안방에 붙어 있었다. 사다리처럼 높은 곳에 달린 문을 열고, 기어 올라가야 하는 다락, 나는 거기서 많은 것들을 찾아내곤 하였다. 온갖 귀한 것들이 거기 있었다. 아버지가 돌 아가신 다음엔 다락을 정리하던 끝에 아버지의 새 모자가 거기서 나오기도 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침 보는 회색 중절모였다. 아까워서 한 번도 쓰시지 않으셨던 것이다. "한 번 써 보시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살그머니 눈물을 훔치셨다. 우리들이 함부로 못 꺼내게 감춰 놓은 수밀도 캔도 있었다. 하긴 '복숭아 깡통'이라고 해야 그 시절의 기분이 난다. 그때 '복숭아 깡통'이 준 거부 경험 때문에 결혼하 자마자 내 돈으로 맨 처음 실컷 사 먹은 것이 그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낡은 사진첩도 있었다. 어느 날 다락 속으로 올라가 잔뜩 몸을 웅크리고 그 사진첩을 넘기니, 어머니와 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사진이 있었다. 두 분이 어떤 바위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으나 내심 어둠에 뒤통수라도 한 대 맞은 듯 놀라면서 사진첩을 넘겼던 기억이 난다.

[B] 이런 일도 생각한다. 어느 날 나는 가족들로부터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다락에 숨었다. 다락의 어두운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나를 찾아 집의 이곳저곳을 살피는 식구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드디어 어머니에게 들켜 화가 나신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다락에서 끌어내려질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 한 힘을 경험했다. 아, 그것이야말로 다정함이다. '버려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나의 숨에서는 그대로 흘러나왔다.

그 집의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며 그 집의 많은 비밀을 품고 있기 마련인 다락은 집의 혼이다. 집의 구석에 달린 심장이다. 그것이 두근거릴 때 그 집에 살고있는 이들은 모두 가슴이 두근 거린다.

요즘의 아파트들은 그 깊은 자궁, 다락을 잃어버린 셈이다. 아파트의 집들을 방문하면 실은 우리는 그 집의 나신(裸身)과 만난다. 없어진 문패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그 집 사람들이 사는 별거벗은 공간과 한 치의 가림도 없이 맞닥뜨리는 것이다. 옛날 마당을 지나 댕돌을 밟고 올라서야 했던 그런 휴지기(休止期)가 없이 곧바로 그 집의 내부와 부딪히는 것이다. 하긴 아파트에도 다락과 같은 역할을 일 정 부분 한다고 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긴 하지만, '구석'이라는 것이 없이 온몸을 일시에 노출하기 마련인 아파트의 다용도실과 다락을 어떻게 비견하라.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간다.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다락 앞에서, 생명의 자궁인 다락 앞에서, 잠시 합장하고 뒤를 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 강은교, '다락」

23.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변화를 묘사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② 계절감을 환기하는 소재가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③ 관찰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파악한 후 이를 자신의 삶과 비교하고 있다.
- ④ 이상과 현실을 대비하여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표출하고 있다.

24. ㉠와㉡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 내면의 갈등을 심화하는 자연물인 반면, ㉡는 화자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자연물이다.
- ② ㉠은 화자의 괴로운 심경을 반영하는 자연물인 반면, ㉡는 화자와 대비되어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는 자연물이다.
- ③ ㉠은 과거의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을 유도하는 자연물인 반면, ㉡는 미래의 삶에 대한 화자의 기대를 보여 주는 자연물이다.
- ④ ㉠와㉡는 모두 교감의 대상으로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자연물이다.
- ⑤ ㉠와 ㉡는 모두 화자가 위치한 공간의 평화로운 정경을 부각하는 자연물이다.

25.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몰래 숨어 들어간 다락에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내려올 때 안도감을 느꼈다.
- ② 다락 속에 몰래 감춰둔 수밀도 캔에 대한 기억 때문에 결혼 후 이를 사 먹었다.
- ③ 다락 속에 있던 사진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놀란 적이 있다.
- ④ 오랫동안 방치된 다락에서 풍기는 향내를 악취로만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⑤ 한옥은 집의 내부를 드러내어 보여 주기 때문에 손님과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기에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26. [A]와[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가족 간의 갈등이 사랑으로 승화되는 장소로서의 다락의 성격이, [B]에는 유년 시절의 추억이 서려 있는 장소로서의 다락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 ② [A]에는 우리의 삶과 친밀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공간으로서의 다락의 성격이, [B]에는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서의 다락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 ③ [A]에는 남들에게 보여 줄 수 없는 것들을 숨기는 공간으로서의 다락의 성격이, [B]에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글쓴이가 찾았던 공간으로서의 다락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 ④ [A]에는 삶이 힘들어질 때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안식처로서의 다락의 성격이, [B]에는 궁핍했던 어린 시절 가족의 형편을 보여 주는 장소로서의 다락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 ⑤ [A]에는 글쓴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한 장소로서의 다락의 성격이, [B]에는 힘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글쓴이에게 도피처가 되는 공간으로서의 다락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타나 있다.

27. (가)~(다)에 대한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의 질문	학생의 대답
(가) '풀은 천리 잇달아'의 '천리'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화자가 위치한 곳과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 간의 공간적 거리감을 나타낸 것 같아요.㉠
'흰머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시어일까요?	타지에서 고생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냄과 동시에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1연의 '비'의 기능에 대해 말해 볼까요?	시상을 촉발하는 매개물로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연물로 볼 수 있어요.㉢
'내 마음 강나루'의 '강나루'는 어떤 공간일까요?	봄을 맞이하여 생명력을 발현하는 만물을 보며 화자가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게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다락을 '자궁'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명이 품어지는 자궁과 같이 다락은 누군가로부터 보호 받는 듯한 안온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8.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우리가 어떤 대상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 대상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 즉 부재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때 부재하는 대상은 공간, 사람, 사물, 시간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부재의 시간은 일시적이거나 영원할 수 있다. (가)는 사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난 화자가 자연물을 바라보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한 작품이다. (나)는 봄비 내린 뒤에 더욱 푸르게 질어 갈 자연 풍경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다)는 정서적 측면에서 다락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가치를 부각하며, 다락을 잃고 사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 ① ㉠에서 '달'은 화자로 하여금 일시적 부재의 대상인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로 볼 수 있겠군.
- ② ㉡에서 '외로운 배'는 고향을 떠난 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가 투영된 사물로 볼 수 있겠군.
- ③ ㉢에서 '향연'은 부재로 인한 슬픔이 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해주므로 부재의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보여 주는 소재로 볼 수 있겠군.
- ④ ㉣에서 '충만한 존재감'은 다락이라는 공간에 있을 때의 느낌

으로, 정서적 측면에서 다락이 라는 공간이 가진 가치를 드러 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㉔에서 '다용도실'은 다락이 없는 아파트에 대한 아쉬움을 달 려 수 있는 공간이므로 부재로 인한 결핍감이 극복되는 곳으 로 볼 수 있겠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6·25 전쟁 중 낙오된 국군 '양'과 인민군 소년 '장'은 우연히 산속에서 마주치게 된다. 이후 서로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동굴 안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된다.

둘은 총 뭉음을 기대고 어깨와 어깨를 비볐다. 레이손의 모닥 불은 거의 꺼져 가고 있는데 동굴 밖 설경 은 어스름 달밤 속에 고요히 잠들고 있었다.

장의 가느다란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반잠을 자고 있던 양은 깜박 떨어진 지 얼마가 되었을까 갑자기 확! 세차게 가슴 을 압박지르는 충격에 소스라쳐 일어나자 ㉑가슴을 쥐어 잡은 장의 두 손을 날쌔게 뿌리쳤다.

"이 자식이."

그의 주먹이 기우는 장의 얼굴에서 터졌다.

"우악!"

하고 장은 땅바닥에 쓰러졌다.

"너 이 새끼."

장은 쓰러진 채 우우우 신음하면서 손으로 땅바닥을 더듬었 다.

"너 죽인다."

전신에 돋았던 소름이 걸리며 양은 어느만큼 마음을 가라앉 힐 수 있었다.

[A]장은 신음 소리를 내며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했다. 양은 조심성 있게 성냥을 그어 레이손 광의 조각 에 불을 붙였다. 그 는 그 불길을 땅바닥을 더듬고 있는 장의 얼굴 가까이로 가져 갔다. 장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불길을 의식한 장은 힘없이 두 눈을 뜨고 조금 부신 듯이 얼 굴을 찡그리더니 어어어 하고 헛소리를 들어 냈다.

"이 새끼야 너!"

그 소리에 장은 '예' 하고 정신을 거두었다. 양은 장의 멱살 을 잡아 치켜올렸다.

"이 죽일 놈의 새끼."/"예?"

장은 언뜻㉒흘어진 시선을 모두며 양의 노여움에 찬 얼굴을 건너보았다. "

요 쥐 같은 새끼 날 죽여 불러구?" / "예? 무어요?"

"너 고런 수작을....."

양은 장의 몸을 힘껏 밀어젖히며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았다. 장은 뒤로 쓰러지며 ㉓넋 없는 표정을 지었다. 양은 그것을 한 번 노려보고 *레이손 껌데기를 굵어모아 모닥불을 만들기 시작 했다. ㉔홍분이 가라앉으며 으스스 몸이 떨렸다.

"a장 이리 가까이 와."

장은 흐르는 코피를 손등으로 닦아 내며 황급히 모닥불 가까 이로 다가왔다.

"너 그런 것이 되리라 여겼나?" / "예?"

"예라니 내 목을 조르려 했지?" / "아뇨, 무슨 말씀예요?"

"왜, 가슴을 쥐어박았어?" / "아뇨, 전 그저 꿈을, 꿈을 꾸었 을 뿐예요."

"꿈?" / "예, 무슨 꿈인지 잊었는데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 그 만 놀래서....."

순간 양의 전신을 쭉 소름이 스쳤다. 소름은 연거푸 파상적으 로 그의 전신을 스쳐 갔다. 가슴에서 몽클하 고 어떤 커다란 뜨 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장!"

양은 그 덩어리를 간신히 목구멍에서 삼켜 버렸다.

양은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가누며 장한테로 가까이 가서 손 으로 그의 얼굴을 적히고 장갑을 뒤집어 그것 으로 코피를 닦 아 주었다.

"장, 난 그것을 모르고 자네가 날....."

"아뇨, 제 잘못이죠, 펍 놀라셨겠어요." / "아냐, 장."

양은 깡통 속에서 휴지를 꺼내 그것을 조그맣게 말아 그의 콧구멍에 찔러 주었다.

"b장, 좀 더 가까이 다가왔어 불을 쪼여, 좀 있으면 날이 밝 겠지."

장은 모닥불 옆에 다가와서 다리를 꺾으며 쪼그리고 앉았다. 양은 한참 동안 종이 가 타는 조그만 불길을 넋 잃은 사람처 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음성은 신음에 가까웠다.

"정말 그들을 죽이고 싶네." / "예?"

"전쟁을 일으킨 놈들을 말야."

[B]양은 일어서서 동굴 밖으로 나갔다. 희뿌연 하늘을 올려 보고 또 흰 눈이 깔린 골짜기니를 굽어보았다.

한번 크게 숨을 내어 쉬었다.

날이 밝자 뜬눈으로 드새운 양이 레이손의 모닥불을 피우고 반합에 눈을 넣어 물이 끓도록 장은 총뭉음에 기대어 자고 있 었다.

불과 인종에는 아직 여기저기 코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양이 가만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깨웠을 때 장은 @멋쩍은 듯이 얼 굴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둘은 눈으로 얼굴을 닦고 나서 아침을 먹었다. 장은 따뜻이 데운 통조림과 양이 끓여 낸 커피를 먹으며 펍 이나 즐겨 했다.

"장 너, 저 레이손을 모두 가져." / "아 저걸 다 어떻게요."

"난 한 통이면 돼, 집어넣을 수 있는 대로 가져가지그래."

장이 갑자기 시무룩해졌다.

"이전 헤어지게 됐군요?"

"안 만났던 것만 못하군, 코언저리가 아프지?"

"아뇨, 괜찮아요."

식사를 끝낸 둘은 저마다 짐을 꾸렸다.

"자 탄환을 받아."

양은 레이손 한 통을 꾸러 들고, 장은 두 통을 꾸러 메었다. 둘은 함께 동굴을 나섰다.

"장!"/"예?"

"잘 가라니 못 가라니 인사를 맡기로 해. 자네는 저리로 가고 난 이리로 갈 뿐이야, 뒤도 돌아보지 마."

양은 동굴을 내려서서 눈을 헤치며 골짜구니를 향해 비탈을 더듬었다.

장은 그것을 한참 보고 섰더니 저편 골짜구니로 발을 옮겼다.

- 선우휘, '단독 강화'

* 레이슨: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전투 식량으로, 그 갑(락)을 모아 불을 피우기도 함.

29. [A]와 [B]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인물들의 행동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B]는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② [A]는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혀 인물의 태도가 변화하는 계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B]는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활용하여 인물의 현재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A]는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바탕으로 사건이 벌어진 상황의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으며, [B]는 구체적인 시대를 언급하여 사건이 벌어진 상황의 역사적 맥락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으며, [B]는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언급하여 사건에 대처하는 인물의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⑤ [A]는 다양한 인물들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들이 처한 고달픈 처지를 부각하고 있으며, [B]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짧은 문장들을 통해 인물들이 경험한 다양한 사건들을 긴박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3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한 충격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 ② ㉡: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행동에 놀랐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분노가 사그라든 사실을 재차 확인한 후 안도하고 있다.
- ④ ㉣: 불시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놀라움과 흥분된 감정이 진정되고 있다.
- ⑤ ㉤: 상대방을 대하며 다소 어색하고 축스러운 듯 웃음을 보이고 있다.

3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려는 모습을, ㉡는 상대방에 대한 호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상대방의 언행을 직접 응징하려는 모습을, ㉡는 상대방에 대한 오해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 ㉡는 모두 정치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는 목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는 모두 특정한 상황에 놓인 상대방을 위로하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를 나타내고 있다.

- ⑤ ㉠, ㉡는 모두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제시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단독 강화」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전후 소설이다. 제목인 '단독 강화'의 사전적 의미는 '한 나라가 동맹국에서 이탈하여 상대국과 단독으로 맺는 강화'로, 이 작품에서는 두 병사의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두 병사는 국가 권력이나 이데올로기로부터 격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속에서, 서로 대립하던 처음과 달리 총을 내려놓은 채 대화를 나누며 같이 밤을 보낸다. 마치 이념의 진공 상태와 같은 공간인 동굴 속에서 군인으로서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 공존 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인물들이 느끼는 불안과 정신적 상처, 전쟁 상황의 비극성 또한 잘 드러나 있다. 작가는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빚어낸 갈등을 조금씩 극복해 가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남과 북의 대립 해소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① 양의 '가슴을 쥐어박'는 행동을 할 정도로 장이 무서운 꿈을 꾸게 된 것은 전쟁에 참전한 군인인 장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겠군.
- ② 양이 장의 '코피를 닦아 주'는 행위나, 헤어짐의 상황에서 '장이 갑자기 시무룩해'하는 것은 두 병사 간의 대립이 사라지고 화해와 공존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전쟁을 일으킨 놈들을 죽이고 싶다'며 양이 신음에 가까운 음성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 전쟁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의 괴로움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양과 장이 함께 밤을 보낸 후 '아침을 먹'는 공간인 '동굴'을 통해 이념의 대립과 갈등보다는 인간으로서의 공존이 우선시 되는 공간이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안 만났던 것만 못하군'이라는 양의 말을 통해 헤어짐의 아쉬움보다는 처음에 서로 대립하던 상태를 상기하며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려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김소월, 「초혼(招魂)」

(나)

뒤편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뒤편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른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뒤편카노 뒤편카노
썩어서 동아뱃줄은 삭아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뒤편카노 뒤편카노
뒤편카노 니 흰 옷자라기만 펄럭거리고.....

오냐. 오냐. 오냐.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뒤편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오냐.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 박목월, 「이별가」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과거의 삶에 대한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동일한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점층적 구조를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3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 스스로 찾은 수직적 공간이고, ㉡은 화자가 타의에 의해 도달하게 된 수평적 공간이다.
- ② ㉠은 화자의 태도가 급격히 전환되는 공간이고, ㉡은 화자의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공간이다.
- ③ ㉠은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 가상적 공간이고, ㉡은 화자가 추억을 환기하는 실제적 공간이다.
- ④ ㉠과 ㉡은 모두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대상과의 소통이 시도되고 있는 장소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장소이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소월의 「초혼」과 박목월의 「이별가」는 모두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그리움과 처절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저승에 있는 지인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지만, 이승과 저승의 세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지인의 죽음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 ① (가)의 '부르다가 내가 죽을',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에는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처절한 슬픔이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군.
- ② (나)의 화자가 '뒤편카노'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는 행위는 이승과 저승이라는 단절된 세계 사이의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나)의 '바람에 불려서'와 '바람에 날려서'는 이승에 있는 화자와 저승에 있는 지인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가)의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과 (나)의 '썩어서 동아뱃줄은 삭아 내리는데'에는 모두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군.
- ⑤ (가)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와 (나)의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에는 모두 죽은 지인과의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화자의 기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군.